

복음에 함양한 윤리적인 삶을 위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의 어제, 오늘

회원, 임원, 활동가와
함께 나누는

그런고 내일

| 정병오 상임공동대표 |



도서출판 **기신**

기운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초판 1쇄 인쇄 2020년 8월 1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8월 4일

지은이 정병오

펴낸이 백종국

편 집 김현아

디자인 송아현

펴낸곳 도서출판 기운실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한강로1가, 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www.cemk.com 메일 cemk@hanmail.net

- copyright©202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ISBN 979-11-952512-2-3 [1323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서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그린라이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김인수, 손봉호, 이만열, 이장규, 원호택, 장기려,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www.cemk.org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해 위한, 기부금유리소득제에

기부자의 어제, 오늘
회원, 임원, 활동가와
함께 나누는 **그리고 내일**



목 차

추천의 글 - 7

들어가는 말 - 10

1. 기윤실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시작되었나? - 13
2. 기윤실의 성격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3. 그 동안 기윤실은 어떤 일을 해왔는가?
4. 누가, 어떻게 기윤실 운동을 섬겨왔는가?
5. 기윤실은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6. 현재 기윤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7. 기윤실이 고민하며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8. 기윤실 회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록1. 기윤실 창립 선언문

부록2. 2019 기윤실 인천 선언

부록3. 섬기는 사람들

부록4. 전국기윤실협의회

부록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으로 함께 하기



추천의 글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



한국교회는 기도, 전도, 헌금, 성경공부, 선교, 봉사, 구제 등 거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세계에 모범적이다. 그 덕으로 개신교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였고 1세기 반 만에 한국의 최대 종교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성장이 멈췄고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윤리적 실패 때문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기는 하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는 실패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한때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조롱거리, 심지어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윤리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 구원을 받을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바로 그 때문에 기

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아주 독특한 ‘복음’이다.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도 그것을 잘 알고 고백한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기윤실의 관심은 신학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윤리는 계명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의 기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소극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주로 적극적인 “…하라”가 아니라 소극적인 “…하지 마라”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복음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윤실은 1987년에 이미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지난 30여 년간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바랐던 열매는 거두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변영신학에 함몰되어 세속적인 힘과 영

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윤실의 임무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비록 바랐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 NGO가 되었고 다른 건전한 기독교 NGO들이 태어나도록 돕는 묘판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런 점에서 기윤실은 한국 교회 역사에 중요한 전기를 하나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을 받았지만 기윤실은 그래도 윤리적 순수성을 잘 지켜왔다. 이에 공헌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창립에 관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회와 교회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기윤실의 역사를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교육계와 개혁주의 신앙계의 다양한 활동으로 매우 바쁜 정병오 공동대표가 시간을 내어 그동안의 역사와 앞으로 추구할 비전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작은 책자가 하나님나라와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도 더 의미 있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들어가는 말

33살 기윤실, 역사에서 길을 묻다.

정병오 (기윤실 상임공동대표)



기윤실이 시작되던 1987년 그 때 대학교 4학년이던 내가 2017년 공동대표를 맡았다. 30년, 한 세대가 흐른 것이다. 그 사이 한국 사회와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기윤실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면 ‘기윤실이 30년 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기윤실은 30년 동안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수행해 왔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변화된 사회와 교회의 맥락에서 기윤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답은 내 사고에서만 나와서는 안 되고 30여 년 동안 선배들이 해 왔던 활동과 고민에 근거한 것이어야 했다. 동시에 단지 선배들이 만들어놓았던 문서를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이를 내 사고와 실천을 통해 나의 언어로 표현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적용해서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2017년 공동대표를 맡은 이후 3여 년의 시간 동안 했던 고민과 실천의 결과물이다. 물론 이 내용은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 이사, 사무국 활동가들과의 공동의 결과물이다. 기윤실 운동의 30년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기윤실이 어떻게 응답하고자 하는지를 기술했다. 그리고 기윤실이 미래에도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개혁을 위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최근 기윤실의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 상근 활동가나 자원 활동가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쓰였다. 물론 앞으로 회원이나 활동가로 함께 할 분들도 염두에 두었다. 이 책을 통해 기윤실이 지난 33년간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어떤 아픔과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했는지, 이런 씨름의 중심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과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많이 나오길 소망해 본다.

이 마음을 담아 김현승 시인의 〈무기의 노래〉로 시작하는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무기의 노래

- 김현승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야
가장 아름다운 보석寶石을
깎고 또 깎듯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武器는
가장 날카로운
양심良心을 만드는 데에만 쓰인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로
우리들의 마음을 떠보시고

지금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우리들의 양심을 시험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역사를 깎고 만드는 그분은 - 곧
누구이실까?



기운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 기윤실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시작되었나?

모든 조직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서 조직의 정신과 사명이 탄생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조직의 정신과 사명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교조주의에 빠져 변화하는 시대에서 도태되기 쉽다. 혹은 처음 붙잡았던 조직의 정신과 사명을 낡은 것으로 여기고 시대의 조류만 좇다 보면 조직의 역사성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직이 건강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정신과 사명이 태동된 역사적 맥락을 잘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처음의 정신과 사명을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재조정하고 여기에 맞는 과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기윤실은 1987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민주화’와 ‘정의’였다. 박정희 정부의 19년 독재 끝에 등장한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

력으로 짓밟으며 폭압적인 통치를 이어갔다. 그리고 정통성을 상실한 불의한 통치에 편승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구조적 모순들이 편만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불의와 모순 앞에서 교회는 무력했다. 일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앙



을 가진 교회들은 시대와 담을 쌓고(혹은 침묵으로 독재와 불의에 동조하면서) 교회 성장에만 힘을 쏟았다. 다행히 그 시대는 1970년대부터 지속된 교회 성장세가 계속되는 시대였지만 교회는 그러한 성장의 열매를 교회당 건축, 기도원 땅 매입 등 자산 축적과 교세 확장의 기회로만 활용했다. 그리고 복음을 종교적 의무 충실을 통한 현세적 복을 누리는 것으로 좁히며 왜곡하였고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적 삶과 세상 가운데서의 소명 실천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펼쳐주지 못했다.

당시 군부독재의 통치 억압과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는 중심 세력은 대학생 운동권과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었다. 이들은 투옥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재에 저항하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함으로 민주화와 정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들은 군부독재의 억압이 강화될수록 이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이념적 토대를 필요로 했고 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사회를 보는 눈과 투쟁의 동력, 방법론을 끌어왔다. 그러다보니 민주화와 사회 정의를 넘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 한 체제 변혁을 꿈꾸었고 이를 위한 폭력적인 저항도 정당화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었다(물론 이 흐름은 1990년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약화되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이어진 교회의 급성장은 학생선교단체들과 기독교성인의 성장도 가져왔다. 이들은 여전히 복음전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었지만, 시대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진 복음의 관점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대학생 운동권과 진보적 지식인들

의 수고와 헌신에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념적 지향과 운동 방법론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 함께 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불의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데 헌신하기 원했지만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마땅한 틀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다.

기윤실은 이러한 기독교 청년들과 지성인들의 고민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 1985년 즈음부터 손봉호



교수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대학교 기독교인 교수 모임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를 교재로 정기적인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 복음에 기반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시대의 불의를 고쳐나가는 기독교 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출범했다. 그러자 이 취지에 공감하는 고민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했고, 기윤실 운동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2. 기윤실의 성격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개인윤리의 기반 위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개인-사회 윤리운동>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단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교회개혁운동>

복음을 기반으로 시민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 시민운동>

모든 단체는 시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고민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단체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과제를 이미 감당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가?”, “이 과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과 구별되는 우리 단체만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 물론 이 고민들의 답을 다 제시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민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되기도 하고 또 처음에 생각했던 답이 운동을 하면서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의 과정 없이 무작정 단체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고민을

놓쳐버리면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윤실의 출범은 당시 이러한 문제로 아파하고 목말라하던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운동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풍성해졌다. 이러한 운동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윤실의 성격과 정체성을 형성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윤리의 기반 위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개인-사회 윤리운동>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윤실이 처음 시작된 1980년대에는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개

인의 도덕 실천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강조가 자칫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의 집중도를 약화시킬 것을 경계했다. 나아가 사회 구조를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합리화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사회 모든 면에서 불의하고 억압적인 구조가 워낙 강고했기에 이를 타파하는 것이 우선이고 개인의 도덕 문제는 이차적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했다. 워낙 불의했던 사회 구조에 반하는 것이 저항의 한 방법이기도 했기에 이 상황에서 도덕과 준법을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기윤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고, 개인윤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바꾸는 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윤실은 개인들이 철저하게 양심과 도덕을 지키는 것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덕과 양심을 잘 지키는 분위기의 확산과 연대의 강화는 불의한 사회구조와 모순들에 균열을 내고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기윤실은 복음이 기본적으로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위

해 살도록 하고 이에 기반 하여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기윤실은 처음부터 검소, 절제, 나눔,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실천해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윤리들이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며 약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렇게 이웃을 위해 절제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실천하다 보면 개인의 실천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개인윤리의 실천을 기반으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할 때 운동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기윤실이 가진 고유한 운동의 방법론이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방식인 것이다.

둘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단체>이다.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모임과 단체들

이 있다. 이 가운데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한다. 대학생 선교단체, 어린이나 청소년 선교단체들이 대표적이다. 한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일반인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 월드비전과 같은 구호나 복지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그렇고, YMCA, YWCA와 같은 사회 계몽 단체들도 그렇다. 이에 반해 기윤실은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기독교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사회정의와 관련해서 일반 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만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기독교 신앙에 기반 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것은 기윤실이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단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나라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한다. 이에서 파생된 하나님나라의 각 영역을 세워가는 일은 성도들이 교

회병행단체를 세워 교회를 보완하며 전문적으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수많은 학생 선교단체, 해외 선교단체, 구호 및 복지 단체들이 활동해 왔다. 기운실은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보다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기운실은 처음부터 모든 활동을 교회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교회의 물질, 인적 자원의 지원을 받았고, 교회를 대신해 좀 더 전문적으로 사회를 섬기고자 했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교회가 좀 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왔다. 이를 위해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가 아닌 교회에 애정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상을 좀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해 온 것이다.

셋째,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교회개혁운동>이다.

기운실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는 윤리 운동이다.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기관이다. 이러한 기윤실의 성격이 필연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 바로 “교회는?”이다. 윤리적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사회를 바꾸기 전에 교회를 먼저 돌아보라는 목소리인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하기 전에 과연 교회라는 조직은 얼마나 건강한지, 사회적 책무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회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사회의 요구이기 이전에 철저하게 개인윤리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윤실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윤실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개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교회의 핵심인 예배나 말씀, 성례 등은 기윤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신학교나 총회, 노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윤실은 예배, 말씀, 성례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재정 사용, 의사결정 구조, 목회자 청빙, 사회봉사 등과 관련된 파생적인 부분의 개혁에 집중해왔다. 물론 파생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본질적인 부분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사회적으로 볼 때는 본질적인 부분보다 파생적인 부분이 더 눈에 띄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파생적인 부분은 본

질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고 서로 넘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이러한 구분과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윤실은 지금까지 교회개혁과 관련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과 이웃을 위해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교회 건축, 목회자의 윤리의식 제고, 후임 목회자 청빙과 관련한 세습반대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그리고 교회 모범 정관 갖기, 정치적 중립 지키기, 부교역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일들도 해왔다. 앞으로도 기윤실의 교회개혁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복음을 기반으로 시민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 시민운동>이다.

기윤실의 처음 출발은 소수의 명망가들이 기독교인 대중들의 의식을 깨워나가는 계몽운동에 가까웠다. 하지만 점차 기윤실 운동의 취지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기점을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출범으로 잡는다고 할 때, 1987년에 출범한 기운실은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의 영역은 교회 봉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운실은 우리 사회의 공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나라를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열어줌으로써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시민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운실이 열어준 기독교 시민운동의 장 안에서 많은 기독교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드려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활동했고, 많은 전문 단체들이 기운실로부터 분화되어 나갔다. 이처럼 기운실은 기독교 시민운동의 모판이자 산파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많은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들과 협력하며 만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3. 기윤실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지난 30여 년 동안 기윤실은 많은 일을 해왔다. 그 일들 가운데는 기윤실이 처음부터 조직의 목표로 삼고 시작한 일도 있었고, 시대적 요청에 호응 한 일도 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겨 온 일도 있고, 일정 기간만 진행했던 일도 있다. 조직의 역량을 총 결집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일도 있고, 애써 수고했지만 눈에 보이는 큰 성과 없이 접어야 했던 일도 있다. 이렇게 기윤실이 펼쳐온 일들은 대략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의식을 깨우고 실천의 삶을 살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기윤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각종 모임, 전도와 선교에는 열심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직장,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는 부족한 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섬기거나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결국 전도의 문도 막힐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윤실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가꾸며, 검소 절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 사랑과 환경 보호의 참된 경건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왔다.



이 사역은 초기에는 설교와 강의 중심의 계몽운동으로, 이후에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통한 실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소형차 타기 운동,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촌지 근절 운동,

전월세 인상하지 않기 운동, 검소한 결혼 문화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사회적 호응을 얻었고, 2012년부터는 「자발적불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절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가치 확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조류가 워낙 거세고, 이를 바꾸어야 할 교회마저도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많이 몰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소, 절제, 나눔, 정직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불편운동」은 한국사회와 교회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믿고 이 운동을 계속 지켜오고 있다.

둘째,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일을 해 왔다.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윤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교회의 비극이자 한국사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 받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문제, 교회 지도자들의 성범죄 등 교회 내 비리와 불법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가장 심각한 교회 타락의 현상이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임원 선거 관련 금품 살포로 문제가 된 한기총의 해체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기윤실은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도 지속해왔다. 이웃을 위해 교회 자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발굴하여 격려하며 그 모범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 재정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목회자와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농어촌 교회와 개척 교회의 사역자 가정을 돕는 사역과 부교역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운동도 전개했다. 2018년부터는 급변하고 다양화된 시대 가운데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계와 사회 이슈를 기독교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나무」 웹진을 발간하고 있다. 「좋은나무」는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목회와 설교에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관점과 신선한 생각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셋째, 청소년과 가정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기윤실은 한국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창립 초창기부터 「기독교가족상담소」와 「아버지학교」 등을 운영했으며, 청소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성도덕을 훼손하는 음란매체들을 추방하는 일에 힘을 써왔다. 또한 한국사회 곳곳에 상존하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불법선거를

추방하고 공명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며,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명선거운동」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운동」, 「도박사행 산업 근절운동」, 「청년부채ZERO운동」,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우리 사회에 윤리적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신문 음란물 추방운동」이었다. 청소년과 아동을 포함한 전 국민이 보는 대중 매체가 경쟁적으로 음란 사진과 글을 게재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불매운동으로 모든 스포츠 신문들이 이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1면에 사과문을 실고 건강한 성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손봉호 장로님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일은 시민운동이 일반 언론을 대상으로 승리한 기념비적인 일로 회자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운동은 「공명선거운동」이다. 당시 선거 때마다 엄청난 돈이 뿌려지고 불법이 자행되던 상황에서 기운실은 공명선거운동연합을 주도하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고, 선거법 개정운동을 통해 돈 선거를 막는 엄격한 공직자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얻었다. 이를 이어 이후에는 선관위 차원에서 불법 선거를 막는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해야 할 일은 줄어들게 되었다.

넷째, 다양한 기독교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해 왔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운실이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맡았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다양한 기독교 운동의 산파 역할이었다. 이는 기운실이 기독교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단체로서의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운실이 단체의 성장이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운실이 직간접으로 산파 역할을 한 단체는 10여 개가 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몇 단체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운실에서 성장하여 독립한 대표적인 기독교 직능인 단

체로 <좋은교사운동>을 들 수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윤실 교사모임>이 다른 10여 개 기독교사 단체들과 연합하여 만든 기독교사 연합모임이다. 기윤실은 초기 교사모임이 교육계 내에서 정직 운동과 학교와 교실을 변화시키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후 <기윤실 교사모임>이 다른 기독교사 단체들과 연합을 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현재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에 4,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기독교사 단체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를 품고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독교법률가회(CLF)>도 기윤실에서 독립한 대표적 직능단체다. <기독교법률가회>는 원래 기윤실 산하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사랑 변호사회’로 출발했다. 이후 조직이 커지면서 법률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목표 하에 독립했고,



지금은 기독 변호사들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기독 학생들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다음으로 기윤실의 중요 운동이 독립하여 단체를 만든 대표적인 경우가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이다. 기윤실의 초창기 중요 운동이던 ‘문화소비자운동’을 이끌던 권장희 처장이 기윤실을 퇴사하면서 하나의 단체로 독립을 한 경우다. 이때 기윤실은 문화소비자운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 운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과 운동 노하우를 이 단체가 이어받아서 하도록 했다. 지금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교육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단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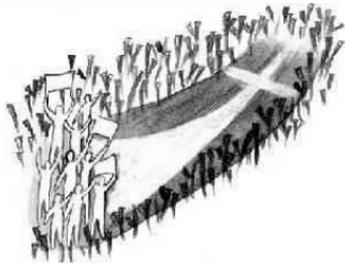
기윤실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독립한 단체로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기윤실이 초기 교회 세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생긴 의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시킨 단체다. 이후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 세습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 교회 분쟁 문제 상담, 모범 정관 갖기 운동 등을 펼치며 교회 개혁 관련 전문 단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 누가, 어떻게 기윤실 운동을 섬겨왔는가?

많은 단체들이 각자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가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단체의 사명과 정신을 이어갔는지가 핵심이다. 감사하게도 기윤실은 좋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헌신된 자세로 함께 했고, 자신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며 섬겨왔다. 이들이 있었기에 기윤실은 초기 정착을 잘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첫째, 메시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되, 권력과 영광을 취하지 않는 리더십이 있었다.

기윤실은 손봉호 교수 외 37명의 발기인으로 시작을 했다. 처음 이 운동을 제안했던 손봉호 교수는 이 운동에서 특정인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대표’ 직책을 두지 않고 ‘실무책임자’로서 일했고, 이 실무책임자도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공동’ 실무책임자로 일을 했다. 처음 10여 년은 김인수 교수, 손봉호 교수, 원호택 교수, 이만열 교수 등이 실무책임자로 섬겼다. 1995년 기윤실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이사회가 조직의 비전을 지키고 공동대표가 본부장들과 협의 하에 운동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20여 년간 김인수 교수, 백종국 교수, 손봉호 교수, 우창록 변호사, 이동원 목사, 이장규 교수, 홍정길 목사가 역대 이사장으로, 강영안 교수, 김동호 목사, 김일수 교수, 박은조 목사, 배종석 교수, 백종국 교수, 손봉호 교수, 이동원 목사, 이장규 교수, 임성빈 교수, 전재중 변호사, 정병오 교사, 정현구 목사, 주광순 교수, 홍정길 목사가 역대 공동대표로 섬겨왔다.

기윤실의 이사장과 공동대표 등의 리더십은 기윤실 정신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기윤실이 꼭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재정을 책임지는 일로 섬겼다. 무엇보다 리더십들은 기윤실이 주장하는 바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먼저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 왔으며, 이 운동을 자신의 권력이나 영광으로 취하지 않으려는 모범과 전통을 만들어왔다.

둘째,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헌신된 자원 활동가들이 많이 모였다.

기윤실의 리더십은 시대를 분별하고 이에 대한 운동의 방향을 잡는 일을 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운동으로 풀어내는 일은 해당 분야에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감당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별 운동본부의 책임자들이 모인 상임집행위원회가 운동의 실무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기윤실 리더십이 갖는 신뢰와 열린 자세가 있었기에 기윤실에는 교회와 세상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진 전문인 자

원 활동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은사를 드러 헌신해왔다.

고세훈 교수, 고재길 교수, 김병연 교수, 김상덕 연구원, 김선욱 교수, 김은혜 교수, 노영상 교수, 목광수 교수, 민종기 교수, 박득훈 목사, 박선영 교수, 방선기 목사, 송인수 이사장, 신국원 교수, 신민범 목사, 신동식 목사, 신준식 목사, 양낙홍 교수, 이상민 변호사, 이상원 교수, 이승종 교수, 이의용 교수, 조성돈 교수, 조홍식 교수, 황영익 목사, 황호찬 교수 등이 기윤실의 운동본부나 위원회를 맡아서 수고해주었다.

셋째, 기윤실이 가진 대안을 회원 및 대중들의 손에 잡히는 운동으로 바꾸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감각을 가진 상근 활동가들의 헌신이 있었다.

기윤실이 초창기에는 ‘계몽운동’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손봉호 교수나 실행위원들의 강연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근 활동가를 세우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동을 이끌어가도록 조직을 정비했다. 초기에는 양성만 교수, 황영철 목사가 간사로 섬겼고,

유해신 목사가 사무처를 맡으면서 사무국의 인원도 늘어나고 상근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등 사무국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후 권장희 사무처장, 나용균 사무처장, 곽상배 사무처장, 라영환 사무총장, 이진오 사무처장, 양세진 사무총장, 조제호 사무처장 등이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수고했다.



넷째, 조직의 비전과 운동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회원들이 함께했다.

기윤실이 시작되기 전 한국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가진 능력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은 기윤실이 시작되자마자 기윤실 운동을 자신의 운동으로 삼아 삶에서 실천하며 이 운동의 확산과 열매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적극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따라 다양한 분과 모임을 만들거나 기윤실이 제시하는 운동을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직장, 교회에서 실천하여 열매를 맺기도 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자발성은 전국적으로 지역 기윤실이 일어나는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운동을 각 영역별로 확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5. 기윤실은 당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단체는 없다. 문제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단체의 성쇠가 좌우된다. 그런데 보통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거나 쇠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보통 그 단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 외부의 공격이 강할수록 내부는 더 단결하여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부의 갈등을 잘 조정하지 못하거나 내부의 문제들이 쌓여감에도 방치를 하다가 내부에서 무너지거나 쇠해지는 단체는 많다. 기윤실도 지난 3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내부의 문제였다.

첫째, 1세대 리더십 이후 리더십을 계승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손봉호 교수는 기운실이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손봉호 교수는 기운실이 ‘손봉호의 기운실’이 되는 것을 극구 경계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실행위원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를 유지했고, 운동이 커지면서는 분과별로 책임자들을 세워서 그 단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손봉호 교수의 노력과 이후 대표를 이어받은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손봉호 교수가 가졌던 영향력의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기운실은 이 공백을 공동대표들과 상임집행위원회(실행위원회)의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기운실 운동의 방향 설정 과정에서 많은 흔들림을 경험하며 나아왔다.

기운실 운동은 처음 붙잡았던 정신과 방향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처음에 해왔던 일들을 교조적으로 붙들고 온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기운실이 응답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과제들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 그리고 교인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그들에게 적합한 소통과 운동의 방식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의 형태와 구성을 새롭게 하고 기윤실에게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를 찾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이 과정이 늘 쉽지는 않았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운동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지, 교회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일과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기윤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많은 혼란이 있었다. 새로운 리더십이나 자원활동가, 상근활동가와 함께 할 때 기윤실의 정체성과 확장성의 균형을 잡는 일도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였다. 때로 이런 고민들로 인해 방향이 약간씩 흔들리기도 하고 정체를 겪기도 했으나,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었다.

셋째, 기윤실 사무국 책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기윤실은 초창기부터 사무국을 강화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해왔다. 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회가 운동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를 실제 운동으로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무처가 전담했다. 이런 체제에서는 사무처장이 기윤실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무국 간사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상임집행위원회와 사무국간의 의사소통을 잘해야만 운동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사무처장의 공백과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때마다 사무처장의 생각과 역량, 성향에 따라 운동 전체가 좌우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능하고 안정적인 사무처장을 세우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사무처에 맡겨진 운동의 짐을 공동대표나 상임집행위원회가 좀 더 지는 균형을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 기윤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기윤실 내부의 갈등이 잘 조정되지 못하고 조직과 운동력을 소모하는 일들도 몇 차례 있었다. 우선 교회세습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을 둘러싸고 ‘건강교회운동본부’와 이사회
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은 ‘건강교회운동본부’가 <교회개혁실천연대>
로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사무처장의 생각이나 운동방향이
공동대표나 상임집행위원회와 잘 맞지 않아서 사무처장이 사임을
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사무처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어떤 조직이든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의 역량과 성숙도를 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윤실은 불필요한 내부 갈등으로 인한 운동력의 소모를
줄이고 이를 조직의 발전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운동 주체간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6. 현재 기운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기운실의 현재 리더십은 2017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공동대표는 완전히 교체되었고, 상임집행위원회는 기존에 해오던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3-4명 충원했다. 2017년 새로운 대표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16년에 기독교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조직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운실의 핵심 가치를 ‘정직’ ‘책임’ ‘정의’로 정리하고, 이를 위해 그 동안 ‘정직윤리운동’ ‘교회신뢰운동’ ‘사회정치윤리운동’ 등 3개 운동본부로 운영하던 체제를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 등 5개 운동본부로 확대개편 했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는 기운실의 시작부터 붙들었던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덕목인 검소, 절제, 나눔, 정직의 가치를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운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절마다 실천 캠페인 주제를 정해 교회와 성도들, 지역기운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거슬러 삶에서의 참된 경건과 이웃사랑, 창

조세계 보전에 앞장서는 윤리적 변혁을 지향하고 있다.



[자발적불편운동 강연회]



[2020년 교회신뢰도여론조사]

〈교회신뢰운동본부〉는 한국교회가 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 3년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양하고 첨예한 사회 이슈에 대해 건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웹진 「좋은나무」를 발간하여 매주 3-4회 정도 SNS를 통해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역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교회 지도자들의 성윤리와 목회 윤리, 교회와 교계기관의 재정문제, 교회를 사유화하는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좋은사회운동본부〉는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함을 통해

부정부패와 불의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빛으로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부채를 상환하며 건강한 재무관리 습관을 갖도록 돕는 「청년부채해방운동」, 윤리적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기업 윤리를 만들어가는 「윤리적 투자운동」, 청소년들이 주일에는 학원에 가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숨이있는교육」,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기독교적 대안을 마련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대책 모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다.



[부채해방운동 컨퍼런스]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

〈바른가치운동본부〉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

여 공공성과 시민성 측면에서 기독교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역을 <기독교윤리연구소>와 협력해서 감당하고 있다.

<청년운동본부>는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해 청년이 주체가 되어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빠르게 밀려오는 일상을 잠시 멈추어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돕는 「자체휴강 프로젝트」와 청년들이 교회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교회」를 진행 중이며, 그 외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이슈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미 쉽지 않은 청년의 삶에 더해진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기 위해 「기윤실 청년센터」를 세워 기독교청년들의 재무지원 및 교육, 심리상담, 활동 및 진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윤실 청년센터 WAY 출범식]

이렇게 5개 운동본부를 통한 일상적인 사역 외에 2-3년 주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를 잡아 그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까지 기운실은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2015-2017),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2018-2019)을 슬로건으로 잡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운동을 펼쳐왔으며, 2020년부터 2-3년간은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슬로건 하여 관련한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기운실 2020년 회원총회]



7. 기윤실이 고민하며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일 것이다. 이 양극화의 가장 중심에는 부의 세습이 심화되면서 빈부차가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 절대적인 계급으로 고착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계층 상승을 꾀할 수 없고,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도덕적 책무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갖는 절망감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의 또 다른 얼굴이 세대 간 양극화다. 경제가 이전처럼 급성장할 수 없고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된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의 기피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위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함께 마음을 모아가기에는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있고, 화가 많이 나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심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전통적인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각자가 처한 계급적 이해관계, 세대갈등, 지역갈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 영역은 정권 획득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어서 이러한 갈등을 정파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고, 사실 보도를 통해 정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이견을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도 정파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갈등과 대립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에 대해 화해와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교회는 이전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이나 사회적 불의에 대해 침묵으로 지지하던 입장을 바꾸어 언젠가부터 교회의

사회 참여를 명분으로 한국사회 정쟁의 한 당사자가 되어 특정 정파의 행동대원 노릇을 하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양쪽 진영의 부족한 면을 동등하게 꾸짖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는 양쪽의 사람들을 한 자리로 이끌고 와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보다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하는 예언자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한국교회의 도덕적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20년 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담임목사직 세습의 문제는 이제 대형교회를 넘어 지역의 작은 교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명성교회 사태가 보여주듯, 이제는 교회세습이 단지 한 교회의 문제를 넘어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목회자들의 성범죄나 교회 재산을 둘러싼 갈등 등은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은 아닐지라도 언론과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면서 교회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렇게 실추된 교회의 권위는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 쇠퇴의 주원인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을 양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운실은 한국교회가 처해있는 위기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기운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자발적 불평운동이나 세습반대, 교회재정 투명성 운동, 목회자 윤리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파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운동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좋은나무>를 통해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대신할 정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지만,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은 더 공고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득권들이 더 강화되면서 이러한 기득권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려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각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일에 집

중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펼쳐지고 있는 <청년부채 해방운동>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주거문제나 토지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찾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운동의 줄기를 잡아가는 것도 한국교회나 한국사회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위에 더하여 재무교육과 상담을 확대했으며, 나아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상담센터 워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세대가 그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고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8. 기윤실 회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윤실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 열려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서를 작성해 정기후원을 약정하고, 기윤실이 제공하는 운동의 가이드와 자료를 따라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면 된다. 기윤실 뉴스레터, SNS 친구나 「좋은나무」 구독으로 함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거나, 기윤실이 전개하고 제안하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기윤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에 다름이 아니다. 기윤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 “검소 절제 나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지만, 이 말은 사실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인 말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검소 절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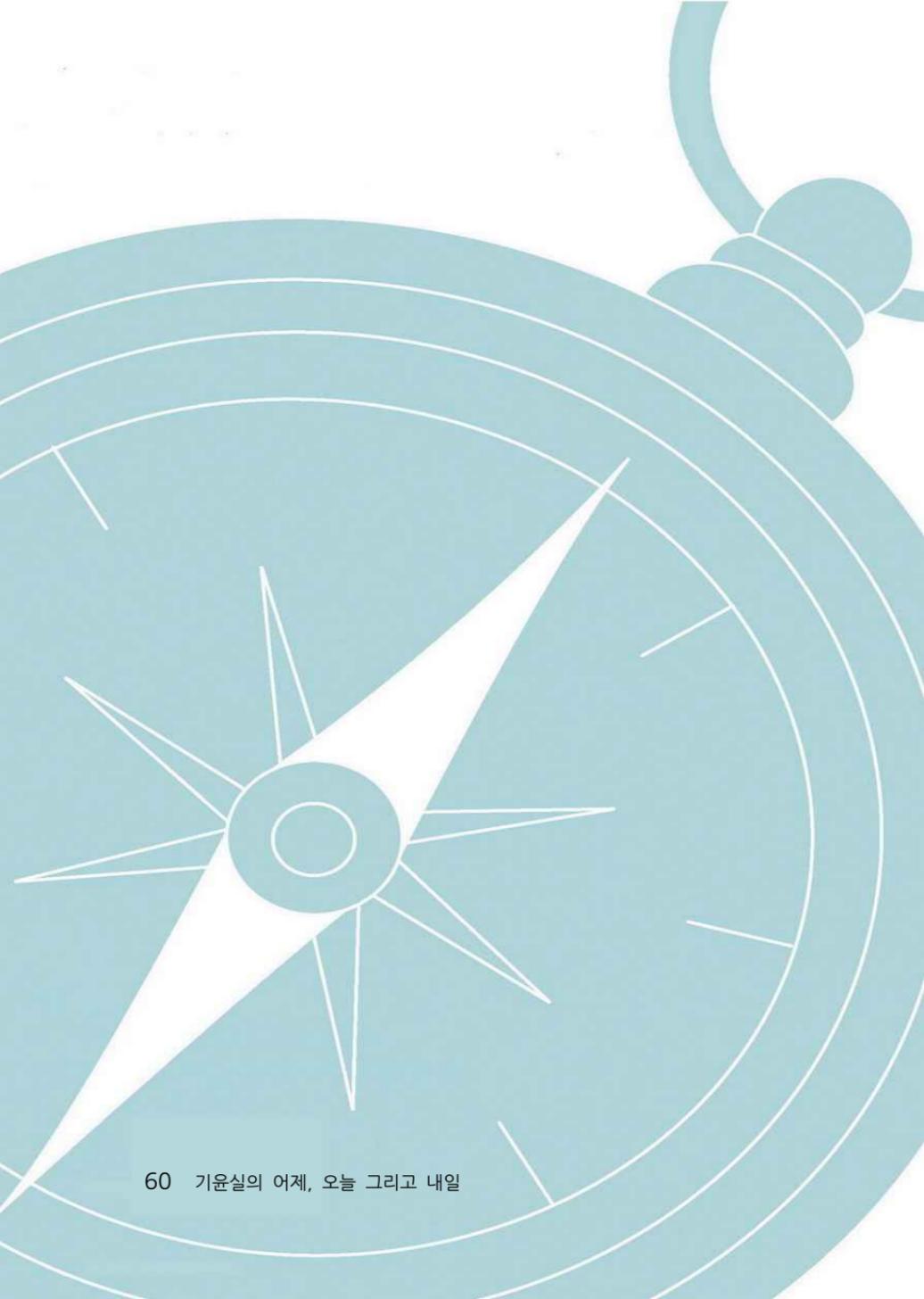
눔의 삶을 살지 않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도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다. 정직과 검소, 절제, 나눔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거짓을 행하며 물질과 쾌락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기운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회원,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힘을 주고 자극을 받으며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겠다는 다짐이며, 기운실 동역자들이 제시하는 안목을 통해 스스로 고민하며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바라보고, 기운실의 운동과 제안을 통해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운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한계와 테두리를 벗어나 이웃사랑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와 사회는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윤실이 조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안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간과 물질, 전문성을 드려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들과 동역함으로도 나의 관점과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기윤실 회원으로서 한 영역에라도 나의 힘과 마음을 보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사역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기윤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며 우리 사회와 교회의 모습들, 기윤실의 운동과 사람들, 앞으로의 과제와 소명을 생각해보았다. 기윤실이 윤리운동, 교회개혁운동, 시민운동 단체로서 맡겨진 일들과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부록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취지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문제점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은 우리의 안정과 인간적인 삶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 갈등과 문제점들은 상당한 부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근거해 있다고 본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부당한 특권과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도덕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고 있다.

한 사회의 도덕은, 물론 그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패의 뿌리가 깊어져서 사회의 도덕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는 책임은

무엇보다도 종교계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독교가 그 임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겨 주셨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교세 확장에는 많은 힘을 기울였으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은 강조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부패에 편승하는 잘못도 많이 저질렀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수치스러운 사건에 기독교인이 관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너무나 뼈아프게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이를 개탄할 자격이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정죄의 손가락을 치켜들 권리가 없음을 통감한다.

이에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조리가 우리들 자신의 불의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개하며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뺀 다음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생활 태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서

로 고취하고자 함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평신도 운동이지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교회 운동은 아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경시하거나 윤리적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듭난 신자의 삶은 반드시 경건해져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함에서이다. 이 순종을 개인의 삶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이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서로서로를 독려하고자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행동지침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1.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돌보며, 자녀들을 주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쓴다.
2. 의식주와 각종 소비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며, 우리 영혼을 깨끗이 지키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자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3. 모든 언행을 정직하게 하고 마땅히 저야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추방하려고 노력한다.
4. 모든 도덕적이고 정당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개인적으로나 직책상 뇌물의 수수를 거부하며 탈세하지 않으며 공중도덕을 지킨다. 정당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임을 인식한다.
5.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하며, 특히 사회의 약자를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하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6. 직장에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되 직장의 불법과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막으려 힘쓴다.

교회에 대해서는

7. 교회 내의 모든 사치와 낭비를 없애려고 노력하며 교우들에게 절제 생활을 권면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힘쓴다.
8. 교회로 하여금 세법, 건축법, 자동차 사업법 등 정당한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며 주위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애쓴다.
9. 교회에서 권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비도덕적인 수단을 통한 교세 확장을 배격하며 비교육적인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거부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10. 기업, 언론, 출판 등 사회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진실을 확인

한 후에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정계와 사회의 모든 비리와 부도덕을 시민의 자격으로 이를 고발한다.

11.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을 자극하는 음란매체와 퇴폐업소들의 추방에 힘쓴다.
12. 불의한 제도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국가의 법과 정책에 대해서 그 개선을 설득, 권고, 경고하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되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13.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 간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약소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의한 침해를 감시하며 약소국의 생산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14.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랑의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핵무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힘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리나 특권도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만 있다. 이 의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와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

1987. 12

〈부록2〉

2019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 선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32년 전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과 불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별히 기윤실은 한국 사회가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특권과 이익을 취하는 부도덕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의와 부도덕을 지적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와 기독교인이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고 종교적으로 합리화함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윤실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나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윤리적 삶을 실천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교회가 성경의 원리 위에 바로 서며,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운동을 실천해 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권위주의가 많이 해소되고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 사회 복지가 확충되고 문화 예술이 발전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남북관계도 여러 굴곡을 거쳐 평화를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위화감은 더 커졌다.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은 더 공고화되고 있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갈등과 불신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취업과 결혼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절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퇴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교회 성장의 복을 이웃과 사회로 흘려보내지 않고 교회당 건축과 부동산 매입 등 교회 내부를 위해 축적했다. 그 결과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담임 목사직 세습과 신규 담임 목회자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교회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개교회주의는 풍부한 종교 인프라를 활용해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촉진하는 대형교회를 탄생시켰고 공교회 의식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결과 성범죄나 거짓말, 재물 관련 범죄 등 목회

자들의 도덕적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삶의 문제도 방치한 채 종교인을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신뢰도는 갈수록 실추되고 있으며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이념갈등 문제에 교회가 이념을 초월하여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함으로써 복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와 교회의 산적한 문제 앞에 기윤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32년 동안 기윤실은 우리 사회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교회는 갈수록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윤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주심과 부르심을 바라보고자 한다. 지난 32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 주어진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 담대하게 외치고 싸워왔듯이, 우리도 지금 주어진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한국교회의 여러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붙들고 다음과 같은 실천을 다짐하고자 한다.

1.(절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할 뿐 아니라 교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절제를 생활화하며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나눔을 생활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탐심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2.(정직)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것이며 교회 내에서도 거짓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힘쓸 것이다. 인터넷을 떠도는 각종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분별력을 기르며 이해관계에 따른 편 가르기에 맞설 것이다. 우리 사회 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제도를 강화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3.(약자보호)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며,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난민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갈수록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4.(교회개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지만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연약하여 부패와 개혁을 반복해왔다. 우리는 현재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부패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교회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5.(권력 감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권력을 위임하셨지만, 이를 맡은 인간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져왔다. 그러기에 권력에는 늘 감시가 필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권력은 물론이고 기업, 언론, 종교,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않고, 모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다.

6.(이념대립 극복)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신의 주장만

을 절대시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현상은 교회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교회 내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7.(바른 가치)

타락 이후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를 왜곡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노동의 신성함을 폄훼하는 등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왔다. 오늘날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며 사회가 급변하고 여러 문제들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이 훨씬 어려워졌다. 우리는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들과 연대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이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하고 실천함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자 한다.

8.(건강한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헌신하고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음란과 쾌락, 왜곡된 성적 가치,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가치나 문화와 싸울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적극 힘쓸 것이다.

9.(청년 지도력 양성)

한국교회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어른 세대가 교회의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해 청년 세대를 다음 세대의 주체로 세워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아픔에 응답하는 사업과 운동을 개발할 뿐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청년 지도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10.(공동선과 연대)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와 선물을 나누어주셨다. 우리는 타 종교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선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인뿐 아니라 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힘쓸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온전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한다.

11.(민족화해와 세계평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민족은 70년이 넘도록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를 증오와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립해왔고, 교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지 못하고 분단 이데올로기에 굴복해왔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이 심화되고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좇아 얽은 이념과 편협한 국가주의, 그리고 이기적 욕망을 초월하여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며, 국제 사회가 평화 가운데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힘쓸 것이다.

2019년 8월 15일

〈부록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 이사회 (2020년)

- | | |
|-----------------------------------|------------------|
| 백종국 (이사장)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 이의용 (부이사장)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 | |
| 정병오 (부이사장, 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 |
| 배종석 (공동대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
| 정현구 (공동대표)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 |
| 강석창 소망글로벌 회장 | |
|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 왕보현 남대문교회 장로 |
| 권혁률 성공회대 연구교수 | 유해신 관악교회 담임목사 |
|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이문식 광고산울교회 담임목사 |
|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 임성빈 장신대 총장 |
| 김정태 MY소셜컴퍼니 대표 | 장동민 백석대 교수 |
| 김종구 세신감리교회 담임목사 |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
| 김홍섭 인천대 동북이물류대학원장 | 조주희 성암교회 담임목사 |
| 박계우 아이티엘엔터프라이즈 부장 |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 박종근 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 주광순 부산대 철학과 교수 |
| 방선기 일터개발원 대표이사장 | 지용근 지앤컴 대표 |
|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 최규창 (주)호성로고스 대표, |
|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 | IVF서서울지방회 이사장 |

■ **자문위원회** (2020년)

손봉호 자문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강영안 미국칼빈신학교 교수	이장규 서울대 명예교수
곽상배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사무국장	이진오 인천기윤실 실행위원장
리영환 총신대 교수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	황준성 숭실대 총장

■ **상임집행위원회** (2020년)

정병오 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배종석 공동대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현구 공동대표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신동식 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학대학원 교수, 라이프호프 대표)
이상민 좋은사회운동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목광수 바른기치운동본부장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박선영 청년운동본부장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기윤실 청년센터장)
고재길 기윤실 자치기구 기독교윤리연구소장 (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교수)
이재민 기윤실 자치기구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화곡노인복지센터장)
김상덕 상임집행위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연구원)
김성경 상임집행위원 (육구코칭연구소 소장, 기윤실 상담센터 공동소장)

■ **사무처** (2020년)

김현아 팀장 윤신일 간사 최진호 간사 문형욱 간사

〈부록4〉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고경태 운영위원	ktyhbg@hanmail.net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문계완 대표	daegu@gmail.com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김상호 사무국장	blanma@idoud.com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mento123@hanmail.net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iksancemk@naver.com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greatcr@hanmail.net
	(21653)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아이플렉스 813호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123kslee@hanmail.net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kyb0191@hanmail.net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comnot@hanmail.net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텔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hsp0924@hanmail.net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정읍	정종인 실행위원장	cibank64@hanmail.net
	(56194) 전북 정읍시 충정로30 3층	
LA	박문규 공동대표	email4lacem@gmail.com

〈부록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으로 함께하기

	기윤실소식	좋은나무 웹진	
			
뉴스레터구독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www.facebook.com/gijunsil
		유튜브 www.youtube.com/gijunsil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gijunsil

	후원계좌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하나은행 109-228746-00104	
후원회원 가입		QR코드로 가입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401호 (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기윤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추천의 글 중

손봉호 자문위원장

기윤실은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지난 30여 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기윤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에 입각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 NGO가 되었고, 다른 건전한 기독교 NGO들이 태어나도록 돕는 모판 역할을 감당하였다.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사회와 교회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기윤실의 역사가 되돌아보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교육계와 개혁주의 신앙계의 다양한 활동으로 매우 바쁜 정병오 공동대표가 시간을 내어 그 동안의 역사와 앞으로 추구할 비전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이 작은 책자가 하나님나라와 한국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의미있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본문 중

정병오 상임공동대표

복음에 기반 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시대의 불의를 고쳐나가는 기독교 운동이 필요하다는 기독교 청년들과 지식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출범했다.

기윤실은 첫째, 개인 윤리의 기반 위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 운동이다. 둘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단체이다. 셋째,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교회개혁운동이다. 넷째, 복음을 기반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시민운동이다.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와 사회는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윤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한계와 테두리를 벗어나 이웃 사랑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에 다름 아니다.



본 소책자는 정순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과당출판(고원플러스)에 신뢰했습니다.



복음의
정병오
상임공동대표